

가족이 함께 걷는 묵주기도의 길 - 남양성모성지



어떻게 해야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월간 소식지 2026. 1. 417호

18260 경기도 화성시 남양성지로 112 (남양읍)
전화 사무실 : (031) 356-5880
성물방 : (031) 356-8880 / 팩스 : (031) 357-5775

누구든 도와 보세요.

이상각 신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오늘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램 다스(Ram Dass)가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스승은 빙긋이 웃으며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 도와라!” 램 다스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몹시 실망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뭔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만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에게 일상으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건축과 남양성모성지 발전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기획과 준비를 하고 5월 이해인 수녀님을 시작으로 매달 명사를 초청해 인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 나태주 시인, 김경일 교수, 김형석 교수, 조서환 대표, 캐서린 원예심리치료 김영미 대표) 6월과 7월에는 6주 동안 매주 남양성모성지 도슨트 아카데미 강의를 갖고 건축가, 미술가, 음악평론가들로부터 남양성모성지의 건축과 예술에 대한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에는 ‘신과 인간’, ‘두 교황’ 영화를 상영하며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에는 ‘제11회 평화음악회 가을의 축복’ 연주가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시편을 읽고 국악 연주를 들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3일에는 희망의 순례자 해 폐막을 앞두고 ‘성 베드로 대성당과 로마의 교황청 대성당들’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양성모성지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도움과 위로 건네고 싶다는 것 말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 한분 한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도움이 되는 일로 만나 뵙고자 합니다.

이상각 신부님 유튜브 채널, 유튜브 검색창에 “이상각 신부”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 해 주세요.



맡겨진, 그리고 기대되는

생명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님을 아는 건 왜 그리 어려울까. 우리는 계획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도 않았다. 우리는 삶의 상태를 확정해놓을 수도, 죽음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생명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선사된 것이며, 죽을 때 도로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마땅히 그것을 유지해야겠지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 존재다.

우리의 가능성은 미약하고, 우리의 때는 시들어간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많은 꿈은 미처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빛이 바랜다. 어떤 확신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까?

우리의 생명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이 기대된다.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기대와 신뢰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웃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최선을 다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그저 자신의 것만을 추구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내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을 보고, 살피고, 살리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문해야 한다. “통하여 나는 소리! 당신을 통해 무슨 소리가 나는가?”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몫을 다하는 방식

- 내 친구 라인홀트 -

그는 오히려 성격이 모났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그의 집은 작은 조립식 건물로 정말 누추했다. '가구'라고 해봤자 뮌헨의 폐품 수집장에 가면 언제든지 거저 집어올 수 있

는 것들이었다. 방 두 칸은 단출하기 그지 없었다. 라인홀트는 진실한 동시에 괴짜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할 때면 그는 자신의 특이한 바이올린 턱받이 모양 등 말하고 싶은 것들을 늘 종이상자나 잡지 한 귀퉁이에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는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다(마지막으로는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오케스트라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었고, 그는 이미 60대 초반이었으며 몇 년 전부터 일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교회를 거부하고 믿음을 갖는 걸 힘들어했지만, 어느 곳이든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성실과 열정으로 그 일을 도왔다. 그는 물질적으로 독일 사회의 최하층에 속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데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구호물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1년에 몇 번씩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음악가로 활동하기 전에 러시아어 교사였기에 우크라이나인들과는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그는 적잖은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뮌헨 병원에 와서 수술받도록 주선해주었다.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런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했고, 여러 번에 걸친 끈기 있는 설득작업 끝에 뮌헨의 의대 교수들이 우크라이나인 몇 명을 무료로 수술해주게끔 했다. 병원 측에서 허락하면, 자선 연주회를 열어 모금하기도 했다. 그는 둥근 활을 써서 바로크음악을 새롭게 연주했다. 그렇게 연주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가 내 공방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은 바흐의 소나타 독주를 이렇듯 독특하고 독창적으로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바이올린 한 대가 4성부를 연주하며, 비브라토 없는 고요함과 오르간처럼 웅장한 소리로 공간을 채운다. 공연을 본 관

객들은 그의 자선활동을 위해 후한 모금을 해주었다. 라인홀트는 그런 일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만두고 싶어했다.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두지 못했다.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못 본 척하지 못했다. 어딜 가든 그는 빠르게 친구가 되었다. 이것만 하고 그만뉘어야지. 저것만 더 해야지. 그러나 결코 끝이 없었다.

언젠가 누군가 이렇게 탄식하듯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형편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뜨거운 돌에 찬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니가요.” 그러자 라인홀트는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모두 더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온전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모두 합산해서 보기라도 해야 한다는 듯,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으니 작은 도움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는 온전한 도움이 됩니다.”

라인홀트는 예기치 않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라인홀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뷔름 계곡의 작은 강인 뷔름에서 수영을 했다. 그 계곡은 내 공방의 동쪽 벽을 지나 암페르 쪽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햇빛이 환하게 비쳐드는 나뭇잎들 아래서 전력을 다해 2분 정도 물결을 거스르며 200미터쯤 간 다음, 헤엄쳐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그런 다음 피자를 먹으러 갔다. 우리는 그 저녁에 신앙 이야기를 많이 했다. 라인홀트는 잘 들어주었지만, 믿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의 눈에 교회는 수백 년에 걸친 권력 남용과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 부의 축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으니까.

나는 우연히 신문의 짧은 부고란을 통해 라인홀

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혼자 살았고, 화장터에서는 예배도 없었다. 찬송가 하나 불리지 않았다. 연락처 목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으니 누가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겠는가.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장례식에 올 수는 없었지만,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기념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나는 라인홀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하늘나라에 쌓은 보화가 내가 쌓은 것보다 더 많구나!’ 생각했다. 물론 보화를 쌓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하지만 나보다 훨씬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보다 훨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지냈던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런 삶은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몫을 다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크나큰 믿음이었는지!

나는 기도 중에 라인홀트가 마태복음 25장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 있는 모습을 눈에 그려보았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언제 당신께 음식을 드리고 당신을 찾아갔습니까? 언제 당신에게 입을 것과 신발을 드렸습니까? 언제 당신이 병드신 것을 보고 돌봐드렸습니까?”

라인홀트는 우크라이나 시골의 작고 열악한 우리에 갇혀 괴로워하는 갈색곰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그 곰이 다른 동물원의 더 크고 더 쾌적한 우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추천해주었다. 음악성이 뛰어난 어린 우크라이나 소녀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해주기도 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7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두 딸을 먹이기 위해 맨발로 시장 구석에서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모으는 형편이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이었다고 예수는 말씀하시지 않을까. - 마틴 솔레스케, 「울림」 中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모든 신앙인이 믿어야 할 계시 진리라고 하며 이렇게 선포하였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 첫순간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에 비추어 원죄의 아무 흔적도 받지 않도록 보호되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낳으실 하느님의 아들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 없이 잉태되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을 받으신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마리아께서는 또한 직접 인류에게 계시해주셨다.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수녀원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처음 발현하신 후 4개월이 지난 11월 27일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문을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1854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원죄 없는 잉태 교리가 반포된 지 4년 후인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14세의 소녀 베르나데타에게 발현하신 마리아께서는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라고 하시며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해주셨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교리는 파티마를 통해 더욱 발전되어 나갔다. 1917년 파티마에 모습을 드러내신 마리아께서는 “그래.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곧 데려가겠다. 그러나 너는 좀 더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통해 내가 세상에 더욱 알려지고 사랑받게 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세상에 불려일으켜지기를 원하신다.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놓아드린 꽃들처럼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며 원죄에 물들이 없어 지극히 깨끗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요청하셨다.

-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中

하느님의 옥좌 앞에 놓인 꽃들처럼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의를 우리의 현실로 옮겨놓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원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서 죄는 힘을 잃는다. 그리스도가 거쳐하고 계시는 우리 내면의 공간에 죄와 잘못된 들어설 틈이 없다. 거기서는 죄가 힘을 빼앗기고 만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한다. 우리가 마리아를 간계도 저의도 속셈도 없이 하느님을 영접하는 순수한 사람으로 기리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순수 무구하고 무염 무결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킨 사람으로 느껴야 한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교회가 지내는 축제는 성탄이 발하는 광채에 어울리며 성탄의 빛이 우리의 불안전함까지 비추게 한다.

순수하고 흠 없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는 경우는 몹시 드물다. 선행을 베풀 때도, 타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저의가 숨어 있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성향이 있다. 이웃 사랑에도 이기적인 동기가 은근히 스며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흠 없이 존재한다. 마음속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에 우리를 갈가리 찢어놓는 죄책감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자기 비하와 자책이 들어설 틈이 없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과 일치되어 있다.

- 안셀름 그륀, 「50가지 성탄 축제 이야기」 中

예수님께 드릴 선물

다사다망했던 생활을 마감하고 예로니모는 베들레헬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그곳을 사랑했고 베들레헬의 아기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다. “오, 예수님, 당신은 저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쓰시며 또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누워계시니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의 아기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로니모, 나는 너에게 다른 무엇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 높은 데서 하느님께 영광!’ 하고 노래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올리브 산과 십자가에서 이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성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미 하늘과 땅이 나의 것이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나는 마치 내게 주는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로니모는 계속 말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께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의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아기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그토록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하는지를 말하겠다. 나에게 네 양심을 가책하는 너의 죄를 다오.” 예로니모는 이에 “주님, 당신은 그 죄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나는 너의 죄를 내 어깨에 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인한 저주를 없애고 너의 슬픈 양심을 기쁘게 할 것이다.” - 마리아 86호

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의 영혼은 곧잘 희생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스스로를 희생자로, 즉 상황이나 사람들, 혹은 운명으로 인한 희생자로 보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이다. 이런 자기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악의적인 권리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들이 있다. 아주 기쁜 믿음도 그것을 면제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희생자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희생자 역할에 빠지면 삶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종이다.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느님이 그를 내어주셨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말한다. “나는 나를 네게 준다. 네가 받도록! 너는 희생자가 아니다. 내가 나를 네게 주었으니 희생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너의 권세이고 존엄이다!” - 마틴 슐레스케, ‘울림’ 中

“하느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도 서로 뭔가를 선물하라는 뜻이다. 우리 자신이 선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선물함으로써 표현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질 만큼 가지고 있어 차라리 서로 간에 선물을 생략해 버리자는 데 의견을 모으곤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건전한 의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징표이며, 생기 넘치는 관계의 표지입니다. 어떤 남자는 매년 성탄절에 할머니께서 손수 짠 양말을 선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선물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선물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짜는 동안 할머니는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그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껏 한 번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말까지 써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화의 모후 왕관의 열두 개의 별 성체조배 회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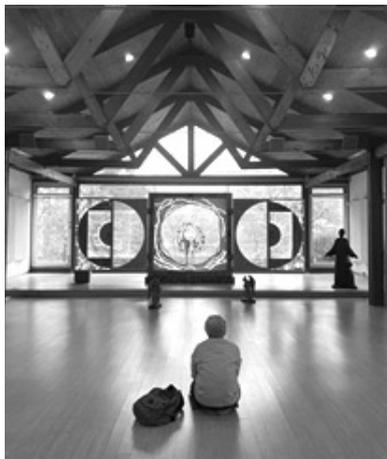
평화의 모후 왕관의 열두 개의 별

“우리의 소망은 성체 앞에서 온 세상을 평화의 기도로 감싸는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 협회(Communita Regina della Pace)는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전 세계 열두 곳에 평화를 위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체조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 지속적인 평화를 정립시키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길은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위대한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라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스라엘), 오즈노예(카자흐스탄), 메주고리에(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야무수크로(코트디부아르), 키베호(르완다)에 이어 한국의 남양성모성지가 여섯 번째 별이며, 일곱 번째는 니에포칼라누프(폴란드 성모의 마을)입니다.

각 별에는 교황님의 축복을 받은 성모님 모습의 아름다운 성광이 모셔지는데, 남양성모성지의 성광은 자비의 성모 이콘처럼 보이는 남양성모성지 묵주기도 길의 항공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일몰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금빛 석양으로 물듭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후에
그의 얼굴이 변모된 것처럼,
우리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변모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을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당신과 대화를 나누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청하도록,
그리고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 폴턴 신 주교 참조

일주일마다 한 시간,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을 나눌 분들을 모집합니다.

오전 11시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께서 평화의 모후 왕관의 열두 개의 별 경당으로 이동하여 성체를 현시해 주십니다.

성체 현시는 오후 4시까지 계속됩니다.

성체가 현시된 경당이 비는 일이 없도록 한 시간씩 주님과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오후 1시~2시 / 2시~3시 / 3시~4시 원하는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성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 031-356-5880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시간을 약속할 수 없는 분은 회원 등록 없이 각자 편한 시간에 성체 조배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왕관의 열두 개의 별 성체 현시대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월요일·토요일 제외

- 월요일 휴무

- 토요일 묵주기도 100단 바치기/성령기도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작성

거듭 안내해 드린 대로 2026년부터 기부금 영수증 종이 출력이 불가합니다. 전자기부금 발급을 위해 필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제출 마감 : 2025년 12월 15일(월) ※ 미작성시 연말정산 불가
- 제출 방법 : 팩스(031-357-5775), 문자(010-5281-6123), 이메일(go3mail@empas.com)
또는 (문자로 받으신) 링크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12월 12일(금), 과달루페 성모 채플 봉헌식

“귀 기울이고 명심하여라,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단다.
그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어머니가 아니냐.”
(과달루페 성모님께서서 목격자 후안 디에고에게 하신 말씀)

일시 : 12월 12일(금)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11시 미사 중

2025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 12월 24일(수) 저녁 7시 / 낮미사 : 12월 25일(목) 오전 11시

2025 이웃과 함께하는 개신교 천주교 성탄 음악회

이 음악회는 "기쁨과 평화"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가 주관하는 행사로 주교회의 의장 주교이신 이용훈 주교님과 이웃종교인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 민중협 대표와 신도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이주민, 다문화 가정을 특별히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남양성모성지 후원 가족도 300명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성지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일시 : 12월 25일(목) 오후 5시, 전석 초대(성지 사무실에 신청 후 선착순 입장)

현 위의 기도 - 앨런 추와 친구들

묵주기도의 15가지 신비를 주제로 구성되어 '묵주 소나타'라 불리는 비버의 미스터리 소나타-셀렉션,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비버의 영적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 2025년 12월 26일(금) 오후 5시, 전석 2만원(NoI 인터파크 예약)

2025 송년 미사 : 12월 31일(수) 저녁 7시

2026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및 신년 음악회 '이루어질 거예요!'

1월 1일(목) 오전 11시 미사 / 미사 전 묵주기도, 미사 후 성체강복 (떡국 드려요!)

2026년의 첫날, 바이올리니스트 한경진이 열두 명의 친구와 함께 바흐, 비발디의 바로크 음악과 멘델스존의 8중주,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를 연주합니다. 또한 베르디 국제 성악콩쿠르 우승의 주역 테너 김정훈과 영국오페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해지가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으로 새해의 기쁨을 나눕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일시 : 2026년 1월 1일 (목) 오후 4시, 전석 2만원(NoI 인터파크 예약)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100단 바치기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

일시 : 토요일 오후 2시
(둘째 토요일은 성령기도회)

장소 : 남양성모성지 열두 개의 별 경당

남양성모성지 성령기도회

일시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6시
2025년 12월 13일(토) 이상각 신부님
2026년 1월 10일(토) 조남구 신부님

장소 : 남양성모성지 열두 개의 별 경당
일정 : 4시 말씀 특강 / 5시 미사 및 치유 안수



사랑에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태주)

지난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텐데 성지
후원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고, 좋지 않을 것을 좋게 생각하고,
싫은 것을 참아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
리가 하느님께 받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에
답할 이유와 힘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늘 예쁘지만은 않고 때
때로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
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한 해도 '나중까지 아
주 나중까지' 사랑에 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통일기원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봉헌 방법

“1구좌 100만원” (1구좌 당 한 명의 이름으로 봉헌하실 수 있으며 매월 13일과 23일 두 대의 미사가 봉헌됩니다.)

1. 일시봉헌 : 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신 후 성지사무실로 알려주세요.

농협 355-0038-5043-4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2. 분할봉헌 : 100만원을 매월 2만원씩 또는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남양성모성지 사무실 전화 031) 356-5880 | 팩스 031) 357-5775 | 이메일 go3mail@empas.com

※ 대성당 봉헌이 끝난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성당 건립과 성지 운영을 위해
성모님께 장미꽃 한 송이 바치는 마음으로 5,000원이나 10,000원씩 꾸준히 봉헌하는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성모성지 후원회비 보내주실 곳

농	협	355-0038-5041-7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신	협	137-003-248126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우	체	100131-01-005451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우	리	1005-102-636520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기	업	450-037748-04-02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국	민	576601-04-039821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성함이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체 후 전화나 이메일로 꼭 알려주세요.

E-mail : go3mail@empas.com